

# 다도해의 보석 **섬**

① 프롤로그

— 광주일보는 창사 58주년을 맞아 전남 섬 문화와 연륙·연도교로 달라진 생활상을 집중 부각하는 '다도해의 보석, 섬'이라는 장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 1964개 외톨이 국토 마침내 빛을 받는다

#텔런트 김미숙씨가 최근 신안 증도를 찾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방문이다. 그녀가 연고자 전여 없는 증도를 즐겨 찾는 이유는 '느림의 미학'이 주는 삶의 여유로움 때문이다.

#지난 18일 완도 청산도에는 외지인들이 3천500여 명이나 몰려 들었다. 이들은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열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었다.

### 있으나마나였던 섬들 녹색성장 아이콘으로

전남 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신안 증도와 완도 청산도에서 벗어난 장면이다. 두 장면은 다도해의 보석인 전남 섬의 현주소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전남 섬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속도감에 질린 도시 사람들에게는 느림 속에서 건강을 쫓고 자연과 호흡하는 주거지이자 관광지, 신자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갯벌과 전일염 등 생활 다양성을 갖춘 천혜의 자연 보고(寶庫)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 섬의 가치는 우선 관광객 증가 추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만 69만4천 200명(여객선 이용객 기준)의 관광객이 전남지역 섬을 찾아 3년 만에 관광객 수가 35.0%나 늘었다. 신안 증도에는 지난해 37만8천645명이 찾았고 완도 청산도에도 31만6천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전년 대비 각각 10.4%와 20.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광객 증가는 증도, 청산도 등 슬로시티 지정과 웰도라도 리조트 등 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것도 원인이지만 연륙·연도교가 속속 개설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완도 신지대교 개통으로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대박을 터뜨린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39개의 연륙·연도교가 완공돼 자동차를 타고 곧바로 섬으로 갈 수 있고 28개가 추진중이다.

그러나 전남 섬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풍부한 자원이다. 국내 전체 섬(3천170개)의 61.9%인 1천964개가 전남에 모여있고 전남의 해안선 길어도 5천540km로 남해안 전체 해안선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섬과 해안선에 딸린 갯벌 면적도 1천54km로 국내 갯벌의 40%가 전남에 있다.

섬과 관련된 풍부한 자원은 다도해가 미래 전남의 먹거리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일염은 식품으로 인정돼 고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시작했고 갯벌의 생물 다양성은 숨겨진 자원으로 미래에 빛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지정한 신안 다도해 생물권 보전지역은 섬과 갯벌, 바다가 어울려 에코(Eco) 관광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흑산도·홍도·비금도 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과 장도 산지습지, 증도의 갯벌도립공원과 대령열전이 포함된 생물권 보전지역은 지속적인 생태변화 모니터링과 친환경적인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여 광주일보는 창사 58주년을 맞아 전남 섬 문화와 연륙·연도교로 달라진 생활상을 집중 부각하는 '다도해의 보석, 섬'이라는 장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 하의도 상공에서 본 보석같은 다도해의 섬과 바다. 전남의 섬은 이제 고립과 단절, 가난과 소외의 땅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 풍요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약속의 땅'이다

/하의도 상공 = 위정행기자 jrwi@kwangju.co.kr



**내 차는 아닌데 옆 차는 하이패스?**

대한민국 고속도로 이용차량 두 대 중 한대는 이미 하이패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하이패스', '하이패스'를 만듭니다.

Hy-pass 한국도로공사

**민낚수목 땀이 되고, 웃음이 되는 시일이 있습니다. 그 시일이 되고싶습니다.**

지역과 함께한 38년 - 대한저축은행은 어려울수록 지역경제의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대한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